



즉시 배포용: 2022년 6월 20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 JOHN R. LEWIS 선거권법에 서명

**S.1046-E/A.6678-E 법안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광범위한 주정부 수준의 유권자 권리
보호법 시행**

유권자 유인, 억압, 협박, 기망, 방해 등을 막아 투표 접근성 확대

*관할 기관에 민사 및 유권자 권리 위반 기록을 요청하여 선거 정책 및 관행 변화에
대한 사전 명령 시행 가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브루클린의 메드가 에버스 칼리지(Medgar Evers College)에서 뉴욕 John. R. Lewis 선거권법(John. R. Lewis Voting Rights Act of New York, VRA)(S.1046-E/A.6678-E)에 서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뉴욕주는 주지사가 2022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 어젠다의 핵심 과제를 달성하고 선거권 보호의 전국적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주지사는 Andrea Stewart-Cousins 상원 여당 원내총무, Zellnor Myrie 주 상원의원, Latrice Walker 하원의원, 유색인 권리 보장 전국 연합(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NAACP) 뉴욕주 컨퍼런스(New York State Conference)의 Hazel N. Dukes 박사 및 주요 선거권 지지자들이 동석한 가운데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이 위협받는 가운데, 뉴욕은 선거권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여 전국을 선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작고한 John Lewis 의원과 Medgar Evers와 같은 활동가의 노고를 기리며 유권자 관련 법을 의미있게 개정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민주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연방 정부가 실패한 곳에서 뉴욕은 일어서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임신중단 보호, 총기 안전 개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거권 보호에서도 같은 일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Antonio Delgado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인이 90%이상을 차지하는 의회에서 가장 시골에 해당하는 지역구를 대표했던 흑인 남성이자, 의회에서 최초로 업스테이트 뉴욕을 대표했던 흑인 남성으로서, 저의 경험이 바로 선거가 불가능해보였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뉴욕주 선거법을 변경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피부색이나 거주지에 관계 없이 동등하게 투표를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합니다."

Andrea Stewart-Cousins 상원 여당 원내총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John R. Lewis 선거권법은 유권자 보호를 성문화하고 확대하며, 시민의 권한을 강화하며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독려합니다. 저는 전국적으로 공화당에 의한 비민주적 퇴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뉴욕이 선거권 보호의 희망의 등불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Carl Heastie 하원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권은 전국에서 위협받고 있으며, 뉴욕은 반드시 이러한 헌정적 권리를 보호해야만 합니다. 기타 주정부가 투표권을 박탈하거나 유인하는 가운데, 저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선거권 보호법안을 통과시켜주신 **Latrice Walker** 선거 위원회(Elections Committee) 의장, 상하원 동료들,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법안 S.1046-E/A.6678-E에 따라 모든 적격한 유권자가 투표할 수 없도록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이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합니다. 특히 특정 인종, 민족, 언어 소수자들은 이제 새로운 조치로 보호를 받아 뉴욕주에서 선거 참여를 위한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법안에 따라 다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 **유권자 유인.** 보호 대상이 투표할 수 없도록 하는 투표 방식 실시를 금지하고 위반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 마련.
- **유권자 억압.** 선거 관련 법과 관행이 다양한 방식으로 악용되어 보호 대상인 유권자들이 선거권을 부인당하지 못하도록 막고 위반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 마련.
- **유권자 협박, 기망, 방해.** 뉴욕 주민이 자신의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협박, 기망,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 마련.
- **외국어 지원 확대.** 연방 선거권법(Voting Rights Act)에 따른 지원 외에 선거 관련 다국어 지원 의무화.
- **사전승인.**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은 연방 선거권법의 "섹션 5 사전승인"에 대항하는 조항을 주 법에 적용하여, 관할 기관이 선거 관련 법과 정책이 영향을 미치기 전 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 시행.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는 관할 기관은 선거 관련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우선 해당 조치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보호 대상의 선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적용을 받는 관할 기관은 민사 및 선거권 위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Zellnor Myrie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유권자 보호 조치를 제정함으로써, 뉴욕은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모든 유권자의 표가 중요하며, 모든 유권자의 표가 반영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VRA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는 물론, 이번 법안을 끝까지 추진해주신 저의 파트너 **Latrice Walker** 하원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거권 보호와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Latrice Walke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John R. Lewis 선거권법은 최근 통과된 가장 중요한 법안으로 미국 어느 주보다 강력하고 종합적인 유권자 보호 조치를 도입합니다.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선거권을 성문화한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작고한 John R. Lewis 하원의원의 유산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투표는 중요하다. 신성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투표야말로 민주주의가 가진 가장 강력하고 비폭력적인 수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주신 지지자, 동료들, Hochul 주지사를 비롯해 NAACP와 NYCLU 등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하원 법안 지지자로서,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NAACP 뉴욕주 컨퍼런스 대표인 **Hazel N. Dukes**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 지역사회는 불의에 시달렸지만, 선거 참여 자체가 억압되었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 변화를 꾀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뉴욕은 다시 한 번 과거 선거법의 잘못을 바로잡고 모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선도합니다. 주 전역의 뉴욕 주민에게 유권자 보호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의 역사적인 법안의 발의자인 Latrice Walker 하원의원과 Zellnor Myrie 상원의원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기념비적인 법안을 위해 함께 협력해주신 Hochul 주지사, Andrea Stewart-Cousins 원내총무, Carl Heastie 의장께 감사드립니다."

Donna Lieberman 뉴욕 시민 자유 연합(New York Civil Liberties Union)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선거권이 위협받고 연방 리더십이 부족한 가운데, 뉴욕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선거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Hochul 주지사는 역사적으로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지역사회가 차별과 방해로 겪지 않고 유의미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커다란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인종적 차별과 유권자 위협 문제 해결에서 다국어 지원과 선거 접근성 확대 등 John R. Lewis 선거권법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강력한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입법자들은 반드시 우리의 진전을 무마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싸워야 하며, 선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메드가 에버스 칼리지 법 사회정의 센터(Center for Law and Social Justice) 사무국장인 **Lurie Daniel Favors**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John R Lewis 선거권법이 오늘 메드거 에버스 칼리에서 서명된 것은 역사적이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이를 통해 뉴욕은 유권자 보호에서 떠오르는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유권자 보호 조치 철회 의지와 함께 전국에서 선거권 보호 조치가 위협에 처한 가운데, 주 및 지역 수준에서 단체, 활동가, 선출직 공무원이 유권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법안은 사전승인 조항이 포함되었고 다국어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한 유권자의 수요를 중심으로 법안을 해석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유권자 보호의 모델을 제시했으며, 다른 지역 역시 이러한 선례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Fulvia Vargas-De Leon 라티노저스티스 PRLDEF(LatinoJustice PRLDEF) 변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John R. Lewis 선거권법 서명을 통해 우리 뉴욕주는 유색 커뮤니티의 선거권 보호의 첨단에서 민주주의 참여를 막는 차별 문제를 해결합니다. 선거권은 논쟁적이거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하고 평등한 선거권에 대한 우리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오늘 법안의 서명을 통해 우리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모든 유권자를 포용하기 위한 커다란 무기를 얻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